

# 기다림이란 말 속에 담긴 설렘과 그리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기다리는 행복’

이해인 지음

은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수수한 웃자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향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를 익혀 내 복된 삶의 즙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을, 꽃이 지면 열매를, 어둠이 구워내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더 이상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소임입니다.

-이해인의 시 '기다리는 행복'

혼란, 혼영, 혼영 등 오늘의 사회는 혼자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따스한 말 한마디, 진심이 묻어나는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이 매마른 마음을 감싸주는 향기로운 글은 매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도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무해 줄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산다.

이해인 수녀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시문으로 많은 이

수도서원 50주년 기념 산문집

첫 서원 이후 1년간 일기 등 수록

‘오랜 벗’ 법정스님 옛 편지 소개도

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 수녀의 시를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8년이면 이해인 수녀가 수도서원 50주년을 맞는다. 수녀는 최근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보낸 반세기를 새롭게 감사하면서 수도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책을 발간했다. 산문집 '기다리는 행복'은 기다림에 담긴 설렘과 그리움을 특유의 정갈한 문체로 형상화한 글들이 담겨 있다. 또한 첫 서원 직후 1년간 작성했던 미공개 단상 140여 편도 수록돼 있다.

이해인 수녀는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암 투병을 시작했지만, 이를 극복해내며 강연과 집필활동을 이어왔다. 작년에 첫 시집 '민들레 영토'(1976) 발간 40주년을 맞았던 저자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독자들의 사랑이었다. 지난 2011년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후 6년만에 펴낸 이번 산문집에는 '순간속의 영원'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의 지혜와 성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책을 준비하던 지난 가을,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준 가르멜 수도원의 언니 수녀님을 하느나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다. 언니의 빈자리를 통해 언제나 자신도 그렇게 떠날 날이 다가올을 절감하는 모습에서 유한하지만 영원을 지향하는 종교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스쳐가는 사물 하나하나까지도 글의 소재로 다룬다. 단추와 타월, 수첩 등을 소재로 한 글에는 저자의 해맑은 감성과 사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어느새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래서 더욱 새로 오는 시간이 고맙고 소중하고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선물 받은 기쁨에 새삼 설렘 적이 많습니다"라며 "남아 있는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라고 속삭인다.

이밖에 산문집에는 이별의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편지글도 담겨 있다.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의 옛 편지, 고 박완서 작가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머니 선종 10주기에 바치는 글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세월호 1주기에 쓴 추모시 '슬픈 고백'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반면 초등학교 학생들과 소년원 아이들에게 쓴 편지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축하 글은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센터·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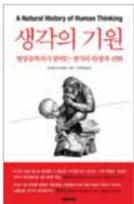


마이클 토마스라 지음·이정원 옮김 '생각의 기원'

왜 인간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을 이룩했을까? 30여 년간에 걸쳐 영장류와 인간의 인지, 언어습득, 문화 형성 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토마스라라는 인간과 다른 유인원 종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연구해왔다.

그가 펴낸 '생각의 기원'은 생각의 탄생과 진화에 초점을 둔다. 한마디로 생각에 대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해에 대한 과학적이며 진화적인 해석이다. 연세대 서은국 심리학과 교수는 "고도의 사고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아이덴티티의 중심이다. 이 능력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큰 질문에 세계 최고 학자가 내어놓은 설명은 비교하기 힘들 만큼 깊고 명료하다. 가장 탁월한 인간의 능력(생각)이 사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었던 미약함에서 탄생했다'라는 흥미로운 역설을 전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저자는 유인원도 생각을 하지만 다만 '나만 생각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 중심의 개인 지향적인 상태에서 약 40만 년 전쯤이 되어서야 인간의 생각이 집단지향적이라기 시작했다. 이 시기 초기 인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규모 협력 생활을 했으며 이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인지 기능을 작동해야 했다. 현대 인류는 초기 인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제도라는 가상의 실체들을 만들고 권력을 부여했다. 이는 '나'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집단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태아·1만7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파올라 프레디카토리 지음·이현경 옮김 '태연한 척할래'

십 대 시절의 기억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특히 막막하거나 공허했던 기억은 성인 이후의 삶을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엄마의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큰 충격 가운데 하나다. 엄마를 잃은 후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으로 살아가는 한 심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간직한 불안했던 한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는 작품이 눈길을 끈다.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탈리아 작가 파올라 프레디카토리의 '태연한 척할래'가 나왔다. 책은 속은 여러면에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괜찮은 척'하는 주인공과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의 마음을 대변한다.

알렉산드라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고등학교생이다. 아빠는 아주 어릴 적 엄마와 이혼하고 소식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삼 대 여자들의 끈끈한 가족 관계는 엄마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된 후 끝나 버린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자 반 아이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알렉산드라는 그런 아이들과 점점 멀어져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든다.

어느 날 그녀는 반 아이들 사이에 왕따로 통하는 '제로'라는 남자에 옆자리에 와 앉아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반항심에 얽매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로에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낀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질수록, 또 다른 '혼자'인 제로에 대해 궁금해진 알렉산드라. 이들은 천천히 한 발씩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아픔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민음사·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예푸 지음·오하나 옮김 '문명은 부산물이다'

지구상에 출현해 수만 년의 시간을 관통해오는 동안 인류는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개척해 지금에 이르렀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부르는 지금의 시대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선 인류의 위치를 확고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의 인류를 이 자리로 오르게 했을까?

이 책의 저자인 사회학자 정예푸는 1950년 북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0여 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다. 문화혁명의 여파가 가리웠던 다음에야 20대 후반의 늦깎이 나이로 베이징사범대학에 입학했으며, 이후 미국 덴버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중국에 돌아와 중국사회과학원, 인민대학과 베이징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저술활동을 펼쳤다. '문명은 부산물이다'에서 정예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여섯 가지의 문명을 제시한다. 정예푸는 인류가 이 여섯 가지의 문명을 손에 넣음으로써 집단지향, 고립과 갈라져 인류라는 이름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족외혼제', '농업', '문자', '제지', '조판인쇄', '활자인쇄'. 이것이 정예푸가 말하는 여섯 가지 문명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은 이 여섯 가지의 문명이 과연 인류라는 공동생명체가 목적하고 목표로 하여 발명해 낸 창조물일까? 아니면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연과 필연이 뒤엉켜 출현한 부산물일까?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답에 있다. 〈넥스트웨이브미디어·2만2000원〉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